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성료

비영리 기관 협업·투자 기회 제공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에서 '2018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작년에 이어 2회 째 개최된 것으로, 비영리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행사다. 아산나눔재단은 비영리 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업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실시했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사회공헌, 비영리기관과의 협업 등에 관심있는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2018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에서 피치마켓 함의영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문화재단

발표에는 뉴미디어 예술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인 '꿈이룸학교', 아동청소년 중 성 착취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융복합 미술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우리들의 눈', 느린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피치마켓' 등 2기 혁신리더 세 개 기관과 3기 혁신리더 한 개 기관이 나섰다.

각 기관은 발표를 통해 투자 기간 동안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냈음을 증명했다. 발표를 진행한 혁신리더 4개 기관의 지원 전 대비 평균 수입은 2억6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네 개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소년 수도 총 5100여명에 달한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기관 성과 발표가 끝난 후, 각 기관당 두 명의 패널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대담을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아이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발표를 진행한 비영리기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CJ나눔재단 청소년 미혼부모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장관상'

지난 14일 진행된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가운데), CJ 사회공헌추진단 민희경 단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그룹

CJ나눔재단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유공자 시상식에서 청소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CJ도너스캠프 헬로드림'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 헬로드림'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이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CJ나눔재단이 지난 3월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한부모 18명을 선정해 학비와 취업활동비, 나아가 학업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까지 연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CJ 계열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CJ ENM 오쇼핑부문과 지난 9월 연계한 모금방송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 CJ나눔재단이 같은 금액을 더해 약 800만원을 청소년 미혼한부모 가정에 전달한다. 또 CJ제일제당은 4월부터 임직원들이 매월 20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지원하는 '찬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용모 단정'의 이중잣대

기자 수첩

김 민 서 〈유통&라이프부〉

여성에게 화장은 필수일까, 선택일까.

'꾸밈 노동'에서 탈피하는 움직임, 일명 '탈 코르셋' 열풍이 여성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정체돼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에서 불거진 '부당 해고'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 첫 출근한 A씨는 출근 5분만에 점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면접 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도 짧아졌단 이유에서다.

A씨는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본 뒤, 다음날 머리 스타일을 투블럭으로 바꿨다. 이후 출근했으나 점주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니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강행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대체 화장이랑 일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지만 점주는 '자기랑 생각하는 게 안 맞으니 같이 일 못한다'고 했다. 내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인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용모단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한 직장 내에서도 남녀에게 주어지는 단정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요거프레소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도 최근 남녀 직원의 단정치 못한 용모를 지적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여성에게만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굳이 사례를 찾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백화점 등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여성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화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A씨처럼 수많은 여성들이 꾸밈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 받고 있다는 의미다.

A씨의 부당 해고건은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그러나 사회에 발 붙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선택할 권리를 잃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용모단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당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

/min0812@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멀리서 온 소식에 마음이 아픈 하루. **60년생**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72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날. **84년생** 상대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을 것이다.

소 **49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61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 커지게 된다. **7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85년생** 준비한 나의 숨은 실력을 보여 줄 기회가 온다.

호랑이 **50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62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7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6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를 해야 미덕이다.

토끼 **51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6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5년생** 가족도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8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용 **52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4년생** 자식이 짝을 데려오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 **76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8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뱀 **5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7년생**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말 **54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6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8년생**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90년생**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양 **55년생** 나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6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7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91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한다.

원숭이 **56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68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0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일 것. **92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더 큰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법.

닭 **57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69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 한다. **93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개 **58년생**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웃자. **70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82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9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돼지 **59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다. **71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83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9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6		9
	4			6			7	
3		6				5		1
			5		6			
	6			7			5	
			9		4			
2		1				8		5
	5			1			9	
9		7		5		3		4

		6				4		
			4		7			
8			5		6			1
	3	4		2		5	6	
7			3		4			2
		1	7		5	3		
	6					7		
	5	3				6	8	
1			6		8			4

스도쿠 정답

4	1	3	2	5	6	7	8	9
2	9	7	3	1	8	4	5	6
5	6	8	7	9	4	1	3	2
6	3	1	4	8	9	5	2	7
8	5	9	1	7	2	3	6	4
7	2	4	6	3	5	9	1	8
1	4	5	8	2	7	6	9	3
3	7	2	9	6	1	8	4	5
9	8	6	5	4	3	2	7	1

4	3	2	8	5	6	9	7	1
9	8	6	2	7	1	5	3	4
5	1	7	3	4	9	6	8	2
8	4	3	5	9	7	2	1	6
2	9	1	4	6	3	8	5	7
7	6	5	1	2	8	4	9	3
1	2	9	7	3	5	4	6	8
6	5	8	9	1	4	7	2	3
3	7	4	6	8	2	1	9	5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

우리 모두 크건 작건 간에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돼서 도왔을 뿐인데 마음 한편에 조용한 만족과 기쁨이 솟아올랐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몸속에서는 긍정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솟아 나왔을 것이라 확신해본다. 필자는 각자의 운을 예측해 보고 그에 맞는 조언을 했을 때 감사하다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할 때 더할 나위없는 감사함과 보람을 갖는다. 아마도 이럴 때 필자 역시 세라토닌이 분비되었을 거라 느낀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시절에는, 어쩜 그리 잘 맞추세요? 하는 얘기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살짝 자긍심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필자는 상담시간을 길게 하기 보다는 당면한 문제가 눈앞에 확하고 들어왔기에 그 부분을 짚어 주는 것이 우선은 필요한 일로 보고 있다. 사실 화급한 문제를 바로 짚어 주니 이를 환호하고 감탄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혹간 어떤 이들은 짧은 상담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한 십년이 흐르면서 지천명(知天命)을 맞던 즈음에 어느 날 아침 기도에 '하심(下心)'이라는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혹여나 자긍심이 지나쳐 자만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이후 필자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마음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자 예전 같으면 그다지 의미 두지 않았을 사주명조상의 중요한 특징 이외의 작은 기운들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듯 각인이 되기 시작했다. 상담 후 기대 이상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더 많이 듣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정말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사주는 다른 게 아니다. 자신들이 한 대로 받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인 것이다. 내가 한 일을 '업'(業)이라 한다. 업이 지닌 에너지의 파장을 기호화한 것이 생년월일 천간과 지지 여덟 글자인 것이다. 이 여덟 글자 안에 해답이 있다. 필자는 겸손하게 설명할 뿐이다. 하심 할 때 지혜로운 대답도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85호